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39호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태국에 17-0 콜드게임승...조 2위로 슈퍼라운드 진출**

김경운 연합뉴스기자

**女핸드볼, 아시안게임 3연패 눈앞...결승은 한일전**

박대로, 박지혁 뉴시스기자

**한국 남자골프,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임성재 개인 은메달**

김동찬 연합뉴스기자

**남북 대결 승리...한국 탁구,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유병민 SBS NEWS 기자

**임시현vs안산 양궁 금메달 '집안싸움'...이우석은 4강 탈락**

안홍석 연합뉴스기자

**아시안게임 남북 대결 보도한 북한, 한국을 '괴뢰'로 표기**

이지현 JTBC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태국에 17-0 콜드게임승...조 2위로 슈퍼라운드 진출(종합)

한국 야구대표팀이 약체 태국을 대파하고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한국은 3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의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2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에 17-0, 5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마쳤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대만-홍콩전 결과와 관계없이 대만에 이어 B조 2위를 확정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약체 태국을 대파하고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한국은 3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의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2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에 17-0, 5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마쳤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대만-홍콩전 결과와 관계없이 대만에 이어 B조 2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1회부터 태국 마운드를 두들겼다. 1번 타자 김혜성(키움 히어로즈)이 상대 선발 포움웃 우띠꼰을 상대로 우중간을 꿰뚫는 3루타를 작렬했고, 최지훈(SSG 랜더스)의 2루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후 윤동희(롯데 자이언츠)의 사구와 노시환(한화 이글스)의 중전 안타로 1사 1, 3루 기회를 만든 뒤 문보경(LG 트윈스)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 윤동희가 홈을 밟았다. 2회엔 김동현(키움)의 볼넷과 김혜성의 중전 안타 등으로 2사 2, 3루 기회를 잡은 뒤 최지훈이 우측 담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쏘아 올려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후속 타자 윤동희(롯데 자이언츠)는 좌월 백투백 홈런을 쳤다.

한국은 3회에도 장타로 점수를 더했다. 김주원(NC 다이노스)이 1사에서 우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상대 선발 투수를 끌어내렸다.

7-0으로 앞선 4회엔 김혜성의 볼넷과 최지훈의 몸에 맞는 공, 상대 투수 보크로 만든 무사 2, 3루에서 윤동희가 싹쓸이 2루타를 폭발하면서 9-0까지 벌렸다. 공격은 계속됐다. 후속 타자 노시환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 기회를 다시 잡은 뒤 문보경이 우익선상 적시 2루타, 강백호(kt wiz)가 2타점 우전 적시타를 쳐 12-0으로 달아났다.

이후 한국은 태국 수비진의 연속 실책으로 한 점을 더 얻어 13-0을 만들었고 김성윤(삼성 라이온즈)의 볼넷과 대타 박성한(SSG 랜더스)의 내야 땅볼, 대타 김지찬(삼성)의 중전 적시타 등으로 두 점을 더해 15-0 콜드게임 조건을 완성했다. 한국은 노시환의 우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 2루타로 17-0까지 벌렸다. 한국은 5회 수비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끝냈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규정을 따르며 5회 이후 15점 이상, 7회 이후 10점 이상 벌어지면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윤동희는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 3득점, 노시환은 2타수 2안타 2볼넷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선발 나균안(롯데)도 4이닝 4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 女핸드볼, 아시안게임 3연패 눈앞... 결승은 한일전(종합)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3연패 달성에 이제 한 걸음만 남겨졌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저장 공상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준결승 중국전에서 30-23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 오른 한국은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3연패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 핸드볼이 정식 종목이 된 이래 2010년 광저우 대회 동메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메달을 쓸어 담았다. 총 8차례 대회 중 금메달을 7차례 목에 걸었다.

결승 상대는 카자흐스탄을 40-22로 대파한 일본이다. 결승전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5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유렵파 류은희가 7점, 이미경이 6점, 강경민이 5점을 올렸다.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주포 류은희를 앞세워 점수 차를 벌렸다. 수비는 중국 범실을 이끌어냈고 박세영 골키퍼도 선방을 이어갔다. 5-1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개최국 중국도 만만찮았다. 중국은 진명칭 등의 득점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다. 그러자 강경민과 송지영의 득점으로 한국이 15-12로 달아났다.

신은주가 수비 과정에서 2분간 퇴장을 당했고 중국 류찬과 저우명쉐가 골을 넣었다. 한국이 15-14로 1점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한국은 강경민을 앞세워 근소하게 앞섰다. 강경민이 반칙으로 2분간 퇴장을 당하면서 페널티 드로우가 주어졌지만 정진희 골키퍼가 선방했다.

류은희가 득점에 성공하며 한국이 20점에 선착했다. 류은희는 진명칭의 공격자 반칙을 이끌어내며 상대 공격을 끊었다. 김선화와 김보은의 골까지 나오면서 22-18로 격차를 벌렸다.

류은희를 앞세운 한국 공격이 성공하는 가운데 중국은 실수를 거듭했다. 실력 차가 드러나면서 점수는 28-19까지 벌어졌다.

경기 막판 한국은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며 30-23으로 승리를 거뒀다.

결승 상대인 일본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에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일본에 34-29로 승리했다. 지난 8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결승에선 25-24, 1점차로 겨우 이겼다.



# [1보] 한국 남자골프,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임성재 개인 은메달

한국 남자 골프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성재와 김시우(이상 CJ), 조우영과 장유빈(이상 한국체대)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골프 대표팀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서호 국제 골프코스(파72·7천28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76언더파 788타를 합작해 우승했다.

2위 태국을 20타 이상으로 여유 있게 따돌린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골프 남자 단체전 패권을 탈환했다.

개인전에서는 임성재가 26언더파 262타로 준우승, 은메달을 추가했다.

개인전 금메달은 27언더파 261타를 기록한 다이치 고(홍콩)가 차지했다. 흥젠야오(대만)가 24언더파 264타로 동메달 주인공이 됐다.

김시우가 23언더파 265타로 단독 4위, 장유빈은 22언더파 266타로 단독 5위에 올랐다.

조우영은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 남북 대결 승리... 한국 탁구,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 <앵커>

대한민국 탁구대표팀의 신유빈·전지희 선수가 여자 복식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북한과 첫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탁구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건 21년 만으로 두 선수는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의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유병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33년 만에 성사된 남북 탁구 결승 맞대결에서 신유빈, 전지희 조는 세계 랭킹 1위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국제무대 경험이 없는 북한 차수영, 박수경 조를 시작부터 거세게 몰아붙여 1, 2게임을 내리 따냈습니다.

북한의 강한 반격에 듀스 끝에 세 번째 게임을 내줬지만, 4번째 게임을 다시 이기며 승기를 잡았고, 마지막 5게임에서 더 압도적인 공격을 펼쳐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둘은 진한 포용으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한국 탁구의 아시안게임 마지막 금메달은 지난 2002년 부산 대회로 2004년생 신유빈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21년 만에 금메달의 쾌거를 이룬 둘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신유빈/탁구 국가대표 : 혼자서 절대 못하는 거라서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 금메달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전지희/탁구 국가대표 : (신) 유빈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유빈이가 빨리 태어났어야 했는데.]

띠동갑의 나이 차이에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아시아 정상에 오른 둘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내년 파리올림픽 메달을 정조준 했습니다.

[전지희/탁구 국가대표 : 내년 올림픽까지 힘 안 떨어지게 관리 잘해서 같이 나갈게.]

[신유빈/탁구 국가대표 : 앞으로 어려운 점 많이 생길 텐데 같이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신유빈, 전지희의 금빛 스매시로 한국 탁구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아시안게임] 임시현vs안산 양궁 금메달 '집안싸움'... 이우석은 4강 탈락(종합)

여자 양궁 '막내 에이스' 임시현(한국체대)과 '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임시현은 3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양궁 여자 개인전 준결승에서 중국의 리자만에게 슛오프 끝에 6-5(28-29 30-27 29-29 27-27 28-28 <10-9>)로 이겼다.

이어진 준결승에서 안산이 중국의 하이리간을 7-3(30-30 28-25 28-28 28-28 30-25)으로 물리치면서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만 20세 임시현은 월드컵 무대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내 대표팀의 '막내 에이스'로 떠오른 선수다.

안산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양궁 3관왕을 이뤄낸 명실상부 한국 양궁 최고 스타다.

안산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한국 양궁은 여자 개인전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예약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는 것은 2014년 인천 대회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이후 9년 만이다.

2006년 도하 대회부터 3개 대회 연속으로 여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한국 양궁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중국에 금메달을 내준 바 있다.

남자 개인전 준결승에서는 이우석(코오롱)이 중국의 치샹서우와 슛오프 승부 끝에 5-6(28-28 28-29 29-26 30-27 27-28 <9-10>)으로 패해 3위 결정전을 치르게 됐다.

전날 오진혁(현대제철)이 16강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우석도 준결승에서 패하면서 한국 남자 양궁은 5회 연속 개인전 금메달 획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 아시안게임 남북 대결 보도한 북한, 한국을 '괴뢰'로 표기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준결승 남북 대결을 보도하며 남한을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준결승전 결과를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보도에서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뢰팀을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국가명도 북한은 '조선'으로, 남한은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남한을 지칭할 때 보통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북한이 '괴뢰'라는 명칭을 쓴 건 이례적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격하된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아시안게임 중 한국의 '북측' 표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나 북측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에 토대를 둔 표현인 만큼 북한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남북 대결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북한을 '북측'이라고 부르자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이 "북측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시정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체조 선수 인종차별 논란 가족 "사과는 쓸데없어"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6956608?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7일 부산서 박세리 월드매치...골프 전설·스포츠 스타 총출동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3022500051?input=1195m>

'연봉 100억'...한국서 선수 몸값 가장 높은 의외의 스포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328591>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표팀, 값진 은메달...한국 e스포츠 전 종목 입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122390001367?did=NA>

한국, 남자 카약 4인승 500m 銀...조광희 3연속 무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3\\_0002469769&cID=10514&pID=105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3_0002469769&cID=10514&pID=10500)

"e스포츠 키우자" 학교도 지자체도 팀 창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328561>

치열해지는 스포츠 스트리밍 경쟁...시청자는 구독 폭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710550108445>

중국 역도 신예 페이신이, '예쁘다' 칭찬에 "외모보단 성적"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3\\_0002469789&cID=10514&pID=105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3_0002469789&cID=10514&pID=1050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